

교차로

승가

'평화통일 복지기금' 이사에
월하 통도사 방장은 15일 국내와 1만3천여 민주평통위원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 '평화와 통일 위한 복지기금'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로 위촉됐다.

인도 4성지 순례후 귀국
현성 현성정사 주지는 회갑을 맞아 10일간 부처님의 구도와 전법의 현장을 돌아보는 인도 4성지 순례를 마치고 18일 귀국했다.

장학금 3천6백만원 전달
도후 신홍사 주지는 26일 오후 3시 신홍사포교당 원각사에서 속초시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승가대학생 등 60명에게 총3천6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민족수호 본사 주지모임
월파 통도사 주지는 18일 오후 6시 통도사 주지실에서 민족 수호를 위한 본사 주지모임을 가졌다.

자료수집차 대만 출국
항적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은 세계 승가교단체계 연구자료를 수집을 위해 21일 대만으로 출국해 24일 귀국한다.

효봉사 32주기 추모법회
현지 송광사 주지는 10월 21일 오전 10시 효봉사 32주기 추모법회 및 송광사 수련원 건립 불사 기공식을 병행한다.

광주교육원 홈페이지 개설
영조 광주불교교육원장은 최근 광주불교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http://www.netian.com/~kjd-alma>

'기독교의 통일준비' 워크숍
호림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은 23일 육화관 강당에서 제5차 통일을 준비하는 불교 정책 워크숍을 진행한다.

광주 불교소년예술팀 창단
행법 선덕사 주지는 19일 오후 2시 선덕사 대웅전에서 광주불교소년예술팀 창단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다.

경내 서정·전통차집 개인
관민 광주 무각사 주지는 5일 무각사내에 불교음품과 서적을 판매하는 무각사 불일서점과 전통차집 연다원을 개원했다.

고침 190호 4면의 경북 칠곡 극락사 주지 원일스님은 대구 도안사 주지이므로 바로잡습니다.

25년 군법사 생활 마감 조길조 박사

"성실한 포교가 올바른 수행"



"장병 불자들과 함께한 지난 25년은 제게 값진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89년 11월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대한불교법사회는 재가법사들의 조직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불교법사회는 재가법사들의 체계적인 포교와 교육을 위한 법회자로 발간, 학술세미나, 구치소 소년원 자원봉사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 왔다. "출가이부중을 옹호하고 존중하면서 교리, 수행, 의식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현대에 알맞는 체계적인 재가법사 교육양성에 더욱 힘을 생각"이라는 목표는 그동안 2년과정의 법사원불교대학을 설립해 지금까지 680여명의 재가법사들을 배출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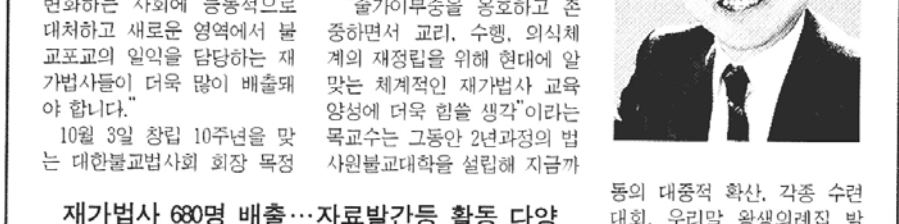
현재 법사회는 서울 경기지역과 부산지역을 비롯 전국적인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자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불교포교의 참여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IMF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제불교교류사업, 세계불교운동의 대중적 확산, 각종 수련대회, 우리말 왕생의례집 발간, 행거사 제작등을 전개하고 있다.

"재가법사 운동은 성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깊이있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신념으로 앞으로도 법사회를 계속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목교수는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ele@buddhapia.com)

"21세기 대비 법사양성 절실"

창립 10돌 맞는 법사회장 목정배교수



"21세기에는 재가법사의 활동영역이 더욱 확장될 것이고,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불교포교의 역할을 담당하는 재가법사들이 더욱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10월 3일 창립 10주년을 맞는 대한불교법사회 회장 목정배교수(동국대)의 말이다. 법사회는 10월1일 장충동 법사원 중앙법당에서 수계식을 겸한 10주년 기념법회를 병행한다.

89년 11월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대한불교법사회는 재가법사들의 체계적인 포교와 교육을 위한 법회자로 발간, 학술세미나, 구치소 소년원 자원봉사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 왔다. "출가이부중을 옹호하고 존중하면서 교리, 수행, 의식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현대에 알맞는 체계적인 재가법사 교육양성에 더욱 힘을 생각"이라는 목표는 그동안 2년과정의 법사원불교대학을 설립해 지금까지 680여명의 재가법사들을 배출해왔다.

현재 법사회는 서울 경기지역과 부산지역을 비롯 전국적인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자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불교포교의 참여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IMF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제불교교류사업, 세계불교운동의 대중적 확산, 각종 수련대회, 우리말 왕생의례집 발간, 행거사 제작등을 전개하고 있다.

"재가법사 운동은 성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깊이있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신념으로 앞으로도 법사회를 계속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목교수는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ele@buddhapia.com)

"조선족 스님 10명 절 없이 활동"

연변불교 현황 밝힌 정판룡 교수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대부분은 연변대 정판룡교수(전 연변대총장)는 연변의 불교근황을 소개하며 고국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중국의 사회주의화 이전에 연변에는 용주사 등 8개의 사찰이 있었으나 사회주의 혁명 와중에 모두 폐쇄.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불교의 불씨조차 느낄 수 없었다. 다행히 최근 10명의 조선족 출신 청년들이 불교에 귀의, 정식 승려가 되어 연변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사찰은 하나도 없다. 스님들의 집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정도다. 연변의 유일한 절인 정각사는 중국인이 세운 사찰이며, 교회는 30여개에 이른다.

"95년 정각사 정안식 때 3만명의 조선족이 동참할만큼 불교에 대한 열의가 뜨겁습니다. 2백만 연변자치주 조선족의 정신적 귀의처가 될 수 있도록 고국불자들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정교수는 11일 부산 정각사 초청으로 방한.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과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하고 18일 출국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국사 이중 아치 비밀 밝혀

과학전람회 대통령상 수상 손동찬군

불국사 청운교는 왜 이중구조로 만들어졌을까? 불국사 소공을 떠났던 손동찬군(안강 제일초등학교 6학년)은 청운교의 특이한 구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손군의 공금증은 결국 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제44회 과학전람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손군이 과학전람회에 제출한 작품은 '불국사 청운교는 왜 이중아치 모양일까?' 손군은 청운교 제1아치와 제2아치의 돌들이 서로 반대 방향의 역사다리꼴인 것은 제1아치가 횡압력을 받았을 때 위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이 힘을 상쇄시켜 주기 위하여 거꾸로 위에서 눌러주는 제2아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중아치 구조물은 지진이 나면 두 개의 아치가 서로 밀착해 현재지면에 강하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불국사의 기반이 되는 양산단층 근처에서 지난 2천년동안 529회나 지진이 발생했으며, 779년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매우 커서 집들이 파괴되고 1백여명 사망이 숨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신라경덕왕 10년(751년)에 김대성이 축조한 불국사의 청운교를 지금 후손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손군이 밝혀낸 이중아치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과학전람회 심사위원장 채영복박사는 "손군의 예리한 관찰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해 대통령상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이은호·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교차로

재가

중앙도서관서 독서법 강연
김종규 삼성출판사 회장은 16일 국립중앙도서관 문화학교에서 '최소년 독서지도 이렇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보리방송모니터 지부장에
오종근 전북산악대교수는 17일 전북불교회관 2층에서 80여명의 불자들로 구성된 보리방송모니터회 전북지부를 결성하고, 지부장직을 맡았다.(0652)271-5530

파리서 경전 전각 전시
최규일 전각가는 11월21일부터 12월5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라블르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금강경> <법구경> 등의 경전 전각 작품과 전각화가 전시된다.

용주사·심복사 문화기행
김현준 불교신학연구원장은 27일 오전 7시 경기도 용주사·심복사·만기사로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 (02)582-6613

'의식의 구조조정' 특강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15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열린 한국불교문화대학 초청 월례토론회에서 '의식의 구조조정'을 주제로 특강했다.

본동종합복지관장에
이혜숙 철학박사는 1일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에 취임, 15일 종단상하 복지관장회의에 참석했다.

대불청 대전지구장에
송석범 대불청 대전지구장은 12일 대전 사업연합회에서 열린 제24차 대의원 회의에서 제5대 지구장으로 재선됐다.

'축구사랑모임' 발족
김홍국 불자가는 16일 '축구사랑모임'을 발족하고, 여의도 라이프 오피스텔 432호에 사무실을 개설했다.

원불교 김대거종사 열반

원불교 최고지도자인 종법사를 지낸 대산 김대거(大山金大擧)종사가 17일 새벽 전북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반했다. 법랍 70세, 향년 84세. 대산 종사는 15세 때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문하로 출가, 원불교 서울출장소장 교정원장 등을 거쳐 종법사를 역임(62~95년)하며 1백만 원불교도의 정신적 지주로 존경받아왔으며, 종교화합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

중흥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 및 10만등 불사

우리 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이자 신라 구산선문 가운데 사자산문의 개산 도량이었던 법흥사가 기울어가는 국운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원력을 모아 중흥 불사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번의 중흥 불사로 거듭나게 될 법흥사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희망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1998년 11월 8일(음 9월 20일) 입재 2001년 9월 20일(음) 회향

법흥사의 중흥불사는 온 국민의 동참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나라의 흥과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창건정신에 투철할 것이며, 참배와 기도를 위한 불자들에게는 내집처럼 편안한 정신적 귀의처가 될 것이며, 21세기의 인류를 위해서는 선불교 중흥도량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흥사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 전화 (0373) 374-9177 팩스 (0373) 374-9178

권선문 호선사 사찰 건립불사

부처님은 온 누리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에 널리 비추네 인연 따라 미치지 않는 곳 없지만 항상 보리좌를 떠나지 않네.....

부처란 명과 상을 떠났으니 찬탄하지 않는곳이 없으며 시방과 삼세를 초월하였으니 그 광명이 법계에 창일하여 일초일목이라도 그 은혜에 젖지 않음이 없습니다. 재채취처가 불찰불신이고 삼라만상이 청정법신입니다.....

어느곳 어디엔들 상좌광토가 아닐 수 있겠음니까마는 지혜가 암둔하고 업장이 후한 우리 중생들로서는 동정을 같이 하는 부처를 부처로 볼 줄 모르며 청정법신에서 호수를 같이 하고 살면서도 청정법신의 전례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기 그지 없고 답답하기 한량 없는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찰이 하나 초창되었다는 말은 부처의 화신이 하나 세상에 나타났다는 말과 같은 것이며 절은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도량이 또 한구데 전립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찰이란 대중이 공동으로 마음에 붙어 있는 후한진 진구를 세울 수 있는 선지이며 대도만행을 고루 고루 수행하여 정각의 절정에 오를 수 있는 신성 장엄한 영장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에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41번지 유명산내력 대부산 줄기에 건립하고자 하는 호선사 대웅전 요사채 연수원 유치원 건립은 참으로 그 의의 자못 중대하기 이룰데 없고 그 사명과 책임 진실로 언어도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리아라의 대원이 구현 성취되어야 할 것이며 일시성불의 대과가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누리의 죄업이 여기서 해소되어야 할 것이며 내심의 정진으로 중도의 불과를 여기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안목을 열 수 있는 명안 종사가 이 도량에서 쏟아져 나와 격외의 고승한 설법으로 미문을 제도하는 부처법회가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며 강론 현담으로 항상 법문상전의 계기가 마련되어 고해에 허덕이고 있는 중생을 삼라아정의 언덕으로 인도할 수 있는 법연의 연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찰 건립의 기본 정신이며 수행납자의 본분 사명일 것입니다. 이러한 원대심현한 뜻으로 이곳에 사찰을 초창함에 있어 불심양면의 대대한 원호아래 오늘 청신남침신년 불자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로 드리며 사회유지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원만히 건립불사가 이루어지길 본사 주지 덕산스님의 지대한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41번지
호선사 주지 석덕산 합장
☎ 018) 359-3573
■ 온라인 번호 : 농협 711-02-017227 (예금주:이병훈)